

Latin America's Perspective of Korea

라틴아메리카의 눈으로 본 한국

남이섬으로의 환상적인 여행

하루 코르데로 마르티네스

한국은 무역, 문화,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나라이다. 오래된 유물과 현대식 건물의 조화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본질을 잃지 않고 전통과 근대를 결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 높은 수준의 화장품, 케이 팝 그룹, 세계적 현상이 되었던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 풍경, 인프라, 미식 그리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명세를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이섬이 기억에 평생 남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마법 같은 경험 중 하나는 남이섬 방문이었다. 반달 모양에 462.809m²의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은 강원도의 춘천에 위치하며, 청평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호수 가운데 있다. 당시에는 아무도 지금의 유명세를 누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남이섬은 서울에서 63km 정도 떨어져있다. 한국의 수도와 가깝다는 이점때문에 이 섬은 방문객으로 붐비는 곳이 되었다. 아마 남이섬이 지금처럼 유명하게 된 데는 한국 드라마의 촬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점점 더 많은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섬의 풍경에서 오는 매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이 아름다운 곳은 마법, 아름다운 풍경, 뛰어난 음식, 편안하게 쉬거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 동식물의 다양함 등으로 가득 차있다. 누구든 자연을 사랑한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나에게는 도회지 삶에서 탈출하는 데 꼭



남이섬 방문(출처: 저자)

필요한 탈출구가 되기도 했다.

역사를 조금 되돌아보자면, 섬의 이름이기도 한 남이(南怡)는 한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남이 장군은 조선시대에 반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끌어낸 인물로, 사후에 이 섬에 매장되었다고 한다. 이 섬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 중 하나는 2006년 3월 1일에 문화적 독립성을 선언하여 마치 남이나라 공화국처럼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고유의 국기, 국가, 여권, 화폐, 도장, 전화 카드 심지어 시민증도 가지고 있다. 남이섬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관광지는 자연과 더불어 예술과도 조화를 이룬다. 이런 목적으로 유니세프, 유네스코와 협업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남이섬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유니세프에 의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는 열네 번째로 이와 같은 명칭을 받게



남이섬 방문(출처: 저자)

되었다.

남이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다. 기차(ITX), 버스, 혹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철을 이용한다면 경춘선의 가평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야 한다. 출구로 나오면 남이섬으로 가는 표지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략 20분간 걸으면 부두에 도착한다. 부두에서 유람선을 타서 남이섬에 도착할 수 있다. 제일 빠른 다른 선택지로는 전철 출구에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부두로 갈 수도 있으며 택시는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많은 관광객이 선택하는 또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서울의 인사동에서 남이섬의 항구까지 왕복으로 15,000원 정도하는 버스를 탈 수 있다.

항구에 도착하면 남이섬 입장권(10,000원)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페리 왕복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점은 외국인인 경우 8,000원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권을 보여주거나 한국 거주증을 보여주면 된다. 조금 더 신나는 방법으로 섬에 도착하고 싶다면 썰매와이어를 통해서 섬에 도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조금 더 비싸다. 재미있고 빠른

선택지로 이 아름다운 장소의 놀라운 풍경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유람선은 약 5분정도 탈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파노라마 길을 즐길 수 있다. 섬에 도착하면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이 나무가 울창한 숲과 다람쥐, 타조, 도끼, 거위, 새, 오리, 공작 등이 있는 초록색으로 뒤덮인 곳이 관광객을 반겨준다.

남이섬의 모든 것은 매우 잘 보존되어있다. 이곳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섬의 색깔이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중 언제든지 이 섬을 방문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각각의 계절을 최고의 표현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의 경우, 가을에 방문했을 때 온도가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고 나뭇잎들이 낙엽으로 바뀌어갈 때 초록색에서 노란색, 심지어 황동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많은 잎들이 이미 말라있었고, 바람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있었다. 봄에 남이섬을 방문하는 것도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왜냐하면 섬이 체리색으로 물들기 때문이다. 남이섬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어느 곳을 보아도 전봇대를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에서 살다보면 이런 차이를 체감하게 된다.

여행하는 동안 호수 근처에서 코코아를 마시고 자연을 즐기며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 큰 거리에는 메타세콰이어와 같이 매우 큰 나무로 뺨뺨하게 가득 찬 산책로가 조성되어있다. 이 거리를 걸으면 평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기도 하다. 이 장소는 섬에서 특히 유명해졌는데, 드라마 〈겨울 연가〉의 촬영으로 그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이 드라마가 2002년에 처음 상영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기념하는 곳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배우들이 첫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본 따 만든 동상이나 각각 드라마에 나타난 곳을 표시한 지도와 짧은 드라마의 역사까지 다룬다.

만약 조금 더 활동적인 것을 원한다면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특히 조금 더 금액을 지불하면 기차나 전기자동차로 돌아볼 수 있기도 하다. 나는 걷는 것을 택해서 조성된 시설을 보고 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 즐길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이유로 하루 전체를 남이섬과 같은 환상의 목적지에서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남이섬 방문 (출처: 저자)

그렇게 하면 남이섬에서 완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이섬은 연과 더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문화, 예술 프로그램, 뮤지컬, 연극 공연 같은 것이 있다. 많은 테마 정원, 호수를 산책하기 위한 작은 돛단배,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썰매와이어, 공원 놀이시설, 트램폴린, 스케이트장, 사격장 등 다양한 것이 준비되어있다. 조금 더 어린 아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있는데,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즐겁게 놀기에 최적화 되어있다. 더불어 밀랍, 전통 도자기, 다른 공예품에 대한 박물관도 있다. 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을 구입하거나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가능하다. 실로 갖가지 취향에 맞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특히 문화 활동을 즐겼는데, 한국의 전통악기와 춤을 볼 수 있는 공연을 참관했다.

또한 섬 안에 도시의 삶에서 며칠 멀리 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엄



남이섬 방문(출처: 저자)

청난 수의 아기자기한 건물과 아름다운 시설을 가진 호텔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식당과 카페가 있다. 대부분은 한식이며 이탈리아 식당도 있었다. 남이섬이 있는 지역에서 한국 음식 중 꼭 먹어보아야하는 것은 닭갈비이다. 남이섬에서는 닭갈비를 파는 식당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옵션은 돼지고기 구이를 꼽을 수 있다. 만약 추운 계절에 방문한다면 커피나 핫초코는 방문하는 사람의 경험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더욱이, 모든 관광지에서 그러한 것처럼 남이섬에도 기념품상점도 즐비했다. 여기에서는 액세서리부터 악기를 사는 것까지 가능했다.

남이섬에 갈 때는 아기자기한 샛길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구석구석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섬은 문화의 오아시스이자 자연과의 조화, 전세계의 예술가들이 그의 재능을 드러내고 또 매 주말마다 문화 활동이 열리는 곳이다. 나에게 남이섬은 한국의 관광, 문화, 예술의 주요 관광 명소이다.



남이섬 방문(출처: 저자)

혹시 시간도 남고 에너지도 남아 있다면 페리에서 돌아와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 뻘뻘 프랑스도 방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전통적 스타일로 조성된 작은 마을이다. 여기서는 박물관, 식당, 카페, 공연,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하숙집까지 발견할 수 있다. 뻘뻘 프랑스는 프랑스 문화와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형성된 공간이다. 프랑스의 전통을 경험하기 위해 방문을 추천하는 훌륭한 곳이다.

[허수진 옮김]

하루 코르테로 마르티네스 — 프리랜서

허수진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과정